



제 3 장 신이식의 역사적 배경

제 3 장 신이식의 역사적 배경

신이식이 말기 신부전 환자의 대체요법으로써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함께 널리 이용되기는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를 이식하려면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어야 하는데 이런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법이 불과 100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00년 초에 프랑스의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혈관도 이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실험하여 혈관 수술의 효시를 이루었습니다.

1954년에 미국에서 일난성 쌍둥이 형제 간에 시도된 것이 세계에서 최초의 성공적인 신장이식으로 보고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3월 25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어머니의 신장을 공여 받은 젊은 남자에게 처음으로 시행하여 성공하였으며 그 후로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서 모두 약 30여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1,000례 정도의 보편화된 수술이 되었습니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뇌사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사회적으로 뇌사가 인정을 받게 되어 뇌사자를 이용한 사체 신장이식이 법적으로 보호 받기 시작하였고 2002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족되고 장기의 공정분배를 원칙으로 뇌사자 장기 뿐만 아니라 이식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장이식은 뇌사자 신장을 구하여 시행하는 사체 신장이식과 가족간에 또는 친척 간에 이루어 지는 생체 신장이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유난히 정이 많은 우리 국민은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주



위 가족들이 기꺼이 신장을 제공하는 생체 신이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미국과 유럽의 나라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외국에서 뇌사자 신이식이 훨씬 많았지만 아무리 의학적으로 잘 맞는 뇌사자 신이식의 성적이 잘 맞지 않는 생체 신이식과 비교하여 성적이 차이가 없어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생체 이식의 수가 뇌사자 이식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